

한국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전 재무장관 사공일 “중국 경제의 경착륙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진상문 인민일보 서울특파원

“연착륙”, “기회”, “공헌”, 이것은 사공 일 한국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중국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장 많이 사용한 핵심 단어이다. 현재 칠순이 넘은 사공 일 이사장은 본지 기자의 방문을 받았을 때 “중국 정부와의 접촉과 오랜 기간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재무장관 재임 당시에는 한·중 양국의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경제 발전과 나날이 긴밀해지고 있는 한·중 관계에 대해 주목해왔다.

사공 일은 중국의 현재 경제발전 단계와 성숙도를 봤을 때,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신상태)의 발전단계는 필수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하였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면 과거 30여 년, 중국 경제는 줄곧 초고속 성장을 하였으며, 현재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는 8% 이하로 둔화되어 7%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제 구조는 소비와 투자, 내수와 수출의 균형 등 더욱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정책 조정을 통해 소비를 적절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 질적인 발전 정책은 중국 경제 신창타이(New Normal)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기위해서는 이해되어야 한다.

사공 일 이사장은 모든 국가 경제는 특정한 발전 단계에 있고, 지속적인 초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중국의 경제발전이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부패, 일부 국영기업의 비능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신창타이(New Normal) 경제에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 도·농 간 격차 축소, 경제 혁신 등의 정책은 중국 정부의 역량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이며, 이는 경제 “경착륙”을 피하는데 효과적이다.

2015년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의미 있는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월 25일 한·중 양국은 무역협정 초안에 서명하였고, 3월26일 한국 정부는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안에 양국은 한·중 FTA를 공식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사공 일 이사장은 기자에게 중국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 중국이 제공할 거대한 기회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웃효과”는 사공 일 이사장이 매우 좋아하는 표현이며, 이것은 한·중 양국이 여러 방면에서 서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그는 한·중 양국은 이미 건설한 경제 협력 기틀을 마련하였고, 투자, 무역 등의 영역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고 말하였다. 한중 FTA는 부분 관세의 감면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긴밀하고 견고하게 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한·중 FTA는 양국뿐 아니라 모든 동북아 지역의 발전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공 일 이사장은 역내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적극 주장하였다고 기자에게 말하였다.

2010년 11월, G20 정상들이 한국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가졌다. 당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이었던 사공 일 이사장은 2016년 중국이 20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공 일 이사장은 기자에게 경험을 기꺼이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의제 설정 관련 “삼칠” 원칙 같은 것이다. “칠”이 가리키는 것은 (정상회의 준비에 기울이는 노력의 70%를) 기존 G20정상회의 합의 사항의 이행에 집중하고 “삼”은 (노력의 30%를) 새로운 의제 개발과 논의에 두는 것이다. 그는 G20 정상회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긴다. 사공 일 이사장은 중국이 중국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2016년 정상회의를 계기로 건설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며, G20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사공 일 이사장은 거대한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견인차(엔진)라 일컬을

만하다고 본다. 특별한 것은 2008년 이래 중국 경제의 성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가 제안한 “일대일로” 건설은 중요한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사공 일 이사장은 경제 신창타이(New Normal)하에서 중국 경제는 7% 정도의 성장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이는 선진국 평균인 2%~3%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에 대한 중국의 기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중국 경제의 발전은 세계 경제 발전에도 매우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중국 경제가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믿으며, 또 중국이 세계 경제에 더욱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본지 서울 5월 22일발)